"조카들과 나눔리더 릴레이 기부로 인생 2막 열어요"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오귀옥 씨

서울 직장 은퇴 후 고향 부산 내려와 집안 모임 조카 2명에 권유해 동참 부산 첫 사례… 풀뿌리 기부 확산 기대

왼쪽부터 조현정, 오귀옥, 오동희 기부자, 박선욱 부산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나눔 릴레이가 이어져 어려운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의 손길이 닿고,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귀옥, 오동희(오빠의 딸), 조현정(언니의 딸) 기부자는 지난달 2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 이하 부산사랑의열매) 사무국에서 부산의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성금을 기부하며 부산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서울에서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2년 전 조기 은퇴한 오귀옥 씨는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던 중 부산사랑의열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부하며 2021년 10월 나눔리더에 먼저 가입했다.

본인의 나눔 실천으로 끝나지 않고 부산에 거주하는 조카들에게도 함께 나눔에 참여해 볼 것을 제안했고, 조카들이 그에 화답하며 나눔리더에 연이어 가입했다. 오귀옥 씨도 2021년에 이어 조카들의 나눔리더 가입식에 맞춰 성금 1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조카 외에도 경남 밀양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동련 씨도 지난해 6월 오귀옥 씨의 참여 권유로 먼저 경남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조카들의 릴레이 기부가 이어진 것은 오귀옥 씨의 특별한 가족 모임에서 비롯되었다. 가족들의 성씨를 하나씩 따서 만든 '오최정조'라는 이름의 모임은 13가구의 가족이 40년이 넘게 함께 하는 모임이다. 여기서 오귀옥 기부자는 조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눔 경험을 공유하며 참여를 권유했다. 어릴 적부터 고모, 이모를 잘 따르던 어린 조카들이 성인이 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제안에 흔쾌히 동참하게 된 것이다.

부산사랑의열매에 따르면 가족 나눔리더 중 조카와 함께 나눔리더에 동반 가입한 사례는 부산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오귀옥 씨는 "지금껏 앞만 보며 달려왔기에 이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돌보며 인생 2막을 펼쳐보고 싶어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나눔을 실천하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느끼며 평소 아끼는 조카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나눔리더에 가입해라고 권했는데 흔쾌히 함께하겠다고 해 너무나 기뻤다"며 "저희 가족 나눔리더 동반 가입을 계기로, 나눔을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동희 씨는 "고모님은 어릴 적부터 배울 게 많은 분이었고, 오늘의 나눔리더 가입은 어찌보면 그런 고모님을 닮고 싶은 저의 작은 소망"이라며 "저희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정 씨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처럼 나눔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저에게 이모님과 사촌언니가 좋은 길동무가 돼 줘 감사하다"며 "긴 호흡으로 셋이 발을 맞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사랑의열매 박선욱 사무처장은 "조카들과 함께 한 가족 나눔리더 동반가입은 부산 최초 사례로 세 분의 나눔리더 가입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건전한 나눔문화가 정착되려면 기업의 사회공헌 성금과 같은 큰 기부금도 중요하지만 기부문화가 확산돼 다수의 개인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기부'가 절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나눔리더와 같은 중소액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산사랑의열매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눔리더는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사랑의열매에서 중소액 개인기부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부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에 브랜딩한 기부 프로그램이다.

부산사랑의열매는 2022년 한 해 43명이 가입해 전년 19명에 비해 226% 증가했으며, 올해는 이달 3일 현재 15명의 나눔리더 신규 회원이 가입했다. 올 연말까지 60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눔리더는 1년간 100만 원 이상을 기부 또는 기부 약정을 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참여 문의는 부산사랑의열매로 하면 된다.

강성할 선임기자 shgang@busan.com

윤임술 전 부산일보 사장 별세

윤임술 전 부산일보 사장·일경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이 2일 별세했다. 향년 100세.

1923년 경남 창원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3년 일본 릿쇼대 불교학과를 중퇴했다.

1945년 국제신문 기자를 시작으로 1972년 신아일보 편집주간을 역임했다. 1986~88년 부산일보 사장, 1996년 일경언론문화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했다.

유족은 며느리 이미옥 씨와 손녀 윤기숙·윤기원 씨, 손자 윤영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3일 오후 3시 대한언론인회 추도식을 거쳐 4일 오전 7시 30분 발인한다. 장지는 시안공원묘원. 02-3410-6907. 강성할 선임기자

김석호 부산영어방송재단 대표

김석호 전 KNN 경남본부장이 부산영어방송재단 제2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1992년 CBS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KNN 보도국 기자, 편성뉴미디어 본부장을 거쳐 경남본부장을 역임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

대방인더스트리·아론그룹 협약

산업용 테이프 제조업체인 대방인더스트리(주)(최고브랜드관리자 CBO 겸 해외영업마케팅총괄이사 홍준형·왼쪽)는 글로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플랫폼 서비스기업인 (주)아론그룹(대표이사 박신영·오른쪽)·에릭선식심)과 지난달 30일 (주)아론그룹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공동연구와 사업화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방인더스트리는 부산에 본사가 있으며 충남 아산, 중국 태주와 심천 등 모두 3곳에 생산 법인을 두고 있다. 강성할 선임기자

부산국세청, 박람회 유치 응원 결의대회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지난달 3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간부와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에 부산청 전 직원의 열의를 모아 응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부산지방국세청이 응원합니다' 현수막을 부착하고 장일현 청장 등 행사 참석자들이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응원 구호를 제창하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장일현 청장은 "2030세계엑스포 유치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부울경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갈 메가 이벤트이므로 부산청 전 직원이 유치의 뜻을 모아 열렬히 응원해 줄 것"이라며 "일선 세무서에서도 X밴드, 현수막 설치, 전광판 홍보 문자 표출, 청내 전자게시판에 유치 응원 사진을 릴레이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부산청은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12회 삼락벚꽃축제 현장에서도 세정 지원 현장 상담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시민들과 함께 부산EXPO 유치를 기원하는 특별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공용차량에 유치 기원 스티커 부착 운행, 엑스포 유치 응원 리본 달기 행사 등을 하고 있다. 강성할 선임기자

재부강원도청장년회, 교육청서 박람회 응원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회장 안정태)는 지난달 31일 2030 세계박람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한을 앞두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교육청에서 하윤수 교육감과 함께 '2030부산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응원했다.

이날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하며 오는 11월 BIE 총회의 최종 개최지 선정 때까지 국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기가 이어가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부산교육청은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가 참여한 유치 염원이 적힌 연날리기, 교육공동체 한마당 걷기대회, 도전 골든벨, 영상 공모전, BIE 회원국에 부산 지지를 촉구하는 손편지 보내기 등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펼쳐 힘을 보탤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정태 회장은 "2030 엑스포 유치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엑스포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서울, 강원도 등에서도 홍보활동을 펼치며 국가적 엑스포 열기 고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성할 선임기자

(주)대성문, 남구청에 식료품

(주)대성문(대표이사 채창호)은 지난달 2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노희헌 부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남구청(구청장 오은택)에 2000만 원 상당의 올리브오일을 전달했다.

채 대표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기부를 하고자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현철 기자 byunhc@

부산 청소년 활동 협력학교 협약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동철)는 지난달 30일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4층 대강당에서 2023년 협력학교·협력동아리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6개 협력학교, 12개 협력동아리의 교감, 담당 교사, 학생 대표 등 24명이 참석해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센터 사업 소개, 공동 연계 활동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강성할 선임기자

웅진통신, 씀씀이가 바른기업

(주)웅진통신(대표이사 장은환·김소연)은 지난달 27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정기후원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웅진통신은 1990년에 설립돼 통신·방송 장비와 부품을 도매하는 전문 중소기업이다. 변현철 기자

제34회 부산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 사단법인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회장 유영호)는 지난달 30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영세중증장애인 부부를 위해 제34회 부산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최규용 선생 21주기 추모헌다례 금당차문화회(회장 강옥희)는 지난 1일 부산 구덕문화공원 금당 다비 앞에서 차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성 금당 최규용 선생 제21주기 추모헌다례와 문화제'를 열었다.

에어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플로깅'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은 최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에 앞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 '플로깅'을 실시했다.

'청소년에게 보탬이 되는 이곳' 발대식 부산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안재민)은 지난 1일 이현우, 하명희 서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에게 보탬이 되는 이곳' 발대식을 했다.

부산박람회 유치 기원 음악회 (사)경헌시니어센터(이사장 김흥숙)·경헌예술봉사단(단장 안규성)는 지난 1일 부산 암남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대원플러스그룹 후원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음악회를 가졌다.

제2기 부산디카시창작아카데미 부산디카시창작아카데미(원장 손계정)는 지난달 30일 부산 영광도서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산 한국디카시학 발행인 강의로 제2기 부산디카시창작아카데미를 열었다.

해운대구 '이웃의 재발견' 협약 부산 해운대구청(구청장 김성수)은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네트워크(대표 최낙용), 종합복지관 7개소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이웃의 재발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구청,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교육 부산 동구청(구청장 김진홍)은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21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전훈련 강화교육을 했다.